

완전하게 사라지기
(2024)

고 산

INT. 레코드 가게 - 낮

레코드 가게 안. 윤재가 카운터 옆에서 음반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도원은 뒤 의자에 앉아 윤재를 지켜본다. 매장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는 도원.

윤재

마침 딱 사람 필요할 때였는데. 사장님이 좋아하더라.

도원

다행이네.

윤재

(도원을 돌아보며)

하는 김에 쪽 하지. 한 달 해서 얼마 번다고.

도원

그정도면 충분해.

윤재는 하던 일을 마저 한다. 도원은 일어나 진열된 음반을 하나씩 꺼내 본다.

윤재

그 같이 다니던 현진 씨랑은, 잘 돼가?

도원

아냐 그런 거. 그냥 친구.

도원

(놀리는 듯한 얼굴로)

썸이야?

도원

아 진짜 그런 거 아냐 ~

그냥 프로젝트 같은 거야.

우리 왜 조별 하던 것처럼.

윤재

(도원을 돌아보며)

와 조별.

그때 우리 조에 있던 사회학과였나, 약간 사회부적응자같던 애.

개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윤재가 CD가 든 박스를 들고 온다.

윤재

여기 앉아봐.

카운터 테이블 옆에 박스를 둔다. 도원이 앉자 음반을 한 장 집어 뒷면을 보여준다.

윤재

이게 사람 얼굴이나 노래 제목 같은게 가려지면 안돼.
지금 이것들은 다 가격이 같으니까 14500으로 맞춰두고,
(라벨 부착기를 조정하며)
어디 붙일 거야, 여기지. 목표를 센터에 두고 스위치. 해봐.

도원

(가격표를 붙이며)
목표를 센터에 두고 스위치.

윤재

(도원이 붙인 가격표를 살피며)
좀 삐뚤긴 한데, 낫배드,
수평만 잘 맞춰봐. 여깁는 것들 다 하면 돼 일단.
알았지?

다시 자신의 카운터로 가 음반을 정리하는 윤재.

도원

(CD를 한 장씩 집으며 반복)
목표를 센터에 두고 스위치.
목표를 센터에 두고 스위치.
목표를 ...

가격표가 부착된 채 도원의 옆에 한 장씩 쌓여 가는 음반들의 모습.

33 INT. 도원의 집/ 현진의 집 - 밤

침대에 누워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도원.

도원

단기니까 시기는 얼추 맞을 거 같아.

현진 (S.O)

다행이다. 시급은?

도원

마지막 만찬용까지도 여유 있어.
너가 거하게 먹자며.

현진 (S.O)

당연하지. 열심히 모아.

도원

(웃으며) 그래.

현진 (S.O)

도원아.

도원

응?

현진 (S.O)

내일 우리 집 올래?

생각지 못한 말에 당황한 도원.

도원 (S.O)

어.. 좋아.

현진

점심쯤 보자. 주소 보내줄게.

전화를 끊는 현진의 뒷모습 실루엣.

34 EXT. 현진의 집 - 낮

도원, 현진의 집 거실에 앉아 있다. 이상할 정도로 텅 빈 내부. 가구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수박을 깎고 있는 현진. 도원을 흘끗 본다.

현진

뭐가 너무 없지.

도원

아니, 깔끔하네.

현진

옛날부터 이려고 살아서.
적응하면 오히려 살기 편해.

과일을 내오는 현진. 도원의 앞에 앉는다. 포크를 건넨다.

현진

수박 좋아하지?

도원

완전.

현진

아이스크림 대용.

도원

잘 먹겠습니다.

둘은 한 조각씩 파먹는다. 방 안에는 선풍기가 돌아간다. 현진의 긴 머리가 바람에 하늘하늘 날린다. 여유로운 모습.

현진

내가 왜 사라지고 싶은지 알고 싶어?

도원

응.

현진

왜일거같아?

도원

음. 잘 모르겠다. 함부로 말하기가 그래.

사이.

현진

너는 쪽 서울 살았어?

도원

아니 성남 쪽. 대학교 오면서 올라왔지.

현진

나도. 나는 인천.

너는 서울 처음 왔을 때 어땠어?

도원

와, 사람 많다. 건물 높다.

현진

맞아. 인천도 나름 대도시인데 여기 오니까

뭐가 그렇게 다른지는 몰라도 괜히 다 엄청 커보였는데.

도원

근데 지금은 그냥 사는 데지. 똑같아.

현진

맞아 다 똑같아.

수박을 집어먹는 둘.

현진

사라지려는 거. 사실 별 이유 없어. 그래서 말하기 더 그랬어.
뭔가 어떤 사건도 변화도 없었어.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한 거야.

도원

왜? 뭔가 지쳐있었던 건가.

현진

반대야.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한게 아니라,
그런 걸 다 견뎠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려나 하나까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든 거야.

도원

(끄덕이며)
그렇구나.

현진

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막연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하나까.

도원

그치. 나도 그랬던 것 같아.

현진

너랑 맨 처음 얘기했을 때도, 기억 나지.
나 알바하는데 앞에서 만난거.

도원

나지 당연히. 비 엄청 왔잖아.

현진

그 때, 나랑 물론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너도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았어.
그래서 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원래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다고 생각했어.

도원

나도. 되게 동질감 느껴졌어.
그때 생각하면 되게 민망하다. 괜히 안 해도 될 말 했던 것 같아.

도원이 머리를 쓸어넘긴다.

도원

사실 처음에는 너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거.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현진

안 믿었어?

도원

아니 안 믿었다기 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냥 궁금했어. 너랑 너가 말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은 믿게 된 것 같아. 믿고 싶기도 하고.

현진

누가 믿냐고 이런 거. 너도 진짜 이상해.

도원

너가 이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현진

나도. 네가 사라지면 좋겠다.

35 **EXT. 현진과 도원 - (Series of Scenes)**

음악과 함께 아래 장면들의 교차

- 현진과 함께하는 장면 1
- 현진과 함께하는 장면 2
- 홀로 달리고 있는 도원
- 현진과 함께하는 장면 3
-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는 도원의 모습
- 건물 옥상에 있는 둘. (ref. faust arp)
- and more..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까워져 보이는 둘의 모습.

36 **EXT. 들판 - 낮**

푸른 들판 가운데 누워 있는 현진과 도원. 줄이어폰을 한 쪽씩 나눠 끼고 있다.

현진

나는 오늘로 과외 끝.

도원

별써 관뉘?

현진

응 꽤 모아봤어.
그래도 나름 재밌어서 지금까지 한거지. 이미 충분해.

도원은 현진을 바라본다.

현진

(계속해서 하늘을 응시하며)

나 진짜 이렇게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보고 싶었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둘. 그러다 현진이 가방에서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꺼내 들판의 풍경을 찍는다. 인화된 사진에 숫자를 적는다.

도원

진짜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

현진

가 봐야 알 것 같아.

(사이)

도원

우린 만날까?

현진

글쎄.. 모르지.

그래도 둘만의 낙원 그런 건 아니니까.

각자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지. 그게 같으면 만날 거고.

도원, 현진을 본다. 현진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 다시 하늘 보는 도원.

도원

그런건가.

가면 행복할까?

현진

모르지.

안 행복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면 괜찮아.

도원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면?

현진

그것도 알 수 없지.

도원, 표면적으로 웃는다.

도원

어떠려나.

현진

어떨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도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현진이 옆에서 꿈 수첩을 꺼내 펼쳐본다.

현진

도원아. 어제 꿈 얘기 해줄까?

도원

뭔데?

현진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했다?

도원

했다고?

현진

어. 했어.

다들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었고 나도 그 중에 있던 거야.
무엇보다 상대가 날 원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는데,
끝내지 못했어.

이상하다는 듯 보는 도원.

현진

그러다 거기서 나왔는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집으로 갈 수 있는 버스도 하나 없었고.
그러다 횡단보도에서 외할머니를 만났는데
검은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어.
고양이가 백살이라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질 않았대.

현진은 어느새인가 수첩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신의 기억에 몰입해 있는 현진.

현진

할머니가 집에 간다고, 그때가 새벽 4시였는데
따라가고 싶었어.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러지 못했어.
누구라도 따라가서 어디든 가고 싶었는데 다 놓쳤어.
진짜 가고 싶었는데..

도원, 현진을 보고 있자니 점차 이상한 기분에 빠진다.

현진

그러다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생각했어,
근데 어디에도 없었어.

서서히 크게 들려오는 경적 소리 F.I.

37

INT. 레코드 가게 - 낮

바깥에서 들리는 차량 소음. 도원은 가게 안에서 멍한 표정으로 부착기를 들고 서 있다. 앞에 놓인 박스는 이미 텅 비어있고, 부착기에 가격표들만이 이어져서 늘어져 있다. 앞을 보니 윤재가 음반 박스를 든 채 이상하다는 얼굴로 도원을 쳐다보고 있다.

윤재

뭐해?

바깥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